

시편 해석의 원리 (II): 탄식시의 분석

현창학 | 구약신학 · 교수

들어가는 말

필자는 2017년 6월호 「신학정론」에 게재한 논문에서 시편의 일반적인 성격을 서론 격으로 설명하고 이어 시편의 기도 장르들에 대해 개관하였다.¹ 시편의 전체 시(기도)들은 탄식시, 감사시(선언찬양), 찬양시(묘사찬양), 신뢰의 시, 회상의 시, 제왕시, 지혜시 등 일곱 개 정도의 기도 장르로 분류된다. 이스라엘은 이 장르들을 사용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이 모여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집이 되었다. 본고는 당시 논문에서 개관에만 그쳤던 시편의 일곱 개 기도 장르 중 주 장르인 (main genres)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분석을 해보려

¹ 현창학, “시편 해석의 원리 (I): 시편의 성격과 장르,” 「신학정론」 35/1 (2017): 9-31.

는 것이다.² 부장르(minor genres)라 할 수 있는 신뢰의 시, 회상의 시, 제왕시, 지혜시는 일정한 형식적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저런 면으로 주 장르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별도의 분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기도 장르들을 분석하면서 각 장르가 이스라엘의 기도에서(또한 오늘날 기독교인의 기도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기도의 주 장르들에 대한 분석은 시편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며, 또한 개별 시편을 착오 없이 바르게 주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기도 장르의 이해는 바르고 풍부한 시편 해석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시편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고 시편이 주는 깊고 풍부하고 다양한 영적 영양을 놓치지 않고 섭취하게 인도하는 소중한 길라잡이이다. 탄식시, 감사시(선언찬양), 찬양시(묘사찬양)의 순으로 분석하기로 하자.

I. 주 기도 장르(major genres)의 분류

기도의 주 장르란 장르의 형태적 구별이 뚜렷한 탄식시, 감사시(선언찬양), 찬양시(묘사찬양)를 말한다. 이들은 시편의 대표적인 장르들이며 나머지 장르들의(부 장르들) 존재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주 기도 장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것들을 분류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분류를 위해 먼저 탄식시부터 생각해 보자. 탄식시는 크게 두

² 지면 관계상 개별 장르의 분석은 본고에서는 탄식시까지만 하고 감사시와 찬양시의 분석은 다음 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다.

종류로 나뉜다. 개인 탄식시와 백성의 탄식시이다. 개인 탄식시란 이스라엘의 시인 개인이 자신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자신을 그 곤경으로부터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백성의 탄식시는 고하고 구하는 면에서 개인 탄식시와 다를 바 없지만 이 경우는 시인 개인의 문제가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문제가 기도의 내용이 된다.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적 곤경을 만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 곤경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백성의 탄식시이다. 개인 탄식시는 기도의 주체가 “나”이고, 백성의 탄식시는 기도의 주체가 “우리”인 점만 다르고 그 외에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 있어 두 기도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베스터만은 개인 탄식시를 LI(Psalm of Lament of the Individual), 백성의 탄식시를 LP(Psalm of Lament of the People)라는³ 기호로 표시한다.⁴

감사시와 찬양시는 좀더 세심하고 정확한 분류를 요한다. 감사시, 찬양시는 다소 현대적인 분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 시편은 이런 분류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⁵ 히브리 시편은 감사시, 찬양시라는 별

³ 탄식시(Lament)는 시인이 자신(들)이 겪는 곤경을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시어 자신(들)을 곤경에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간구시(Petition)라 불려도 무방하다. 즉, 탄식시와 간구시는 같은 이름이다. 개인 간구시(Psalm of Petition of the Individual), 백성의 간구시(Psalm of Petition of the People)로 불려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⁴ 본고의 주 기도 장르 분류는 기본적으로 베스터만의 분류의 도움을 얻고 있다. Claus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trans. Keith R. Crim and Richard N. Soulen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⁵ 감사시, 찬양시라는 이름은 적어도 Gunkel 이후에 공식화된 분류가 아닌가 한다. 참고: Herman Gunkel, *An Introduction to the Psalms*, trans. J. D. Nogalski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8), 1-250. Mowinckel도 Gunkel을 따라 그대로 감사시(Thanksgiving Psalms), 찬양시(Hymn of Praise)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Sigmund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trans. D. R. Ap-Thomas (Nashville: Abingdon, 1962), vol. I, 81-105; vol. II, 31-43.

도로 구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의 “찬양”을 알 따름이다. 히브리어 할렐루(הלללו), 짜머루(זמרו), 쉬루(שירו), 바라후(ברכו), 호두(הודו)라는 단어들을 통한 하나의 하나님 찬양만 있다.⁶ 다만 내용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시인에게 베푸신 어떤 구체적인 구원 행위를 고백하며 찬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일반적이고 총체적으로 기술하며 찬양한 것이다. 전자는 어떤 구체적인 곤경이(질병, 곤경, 위협, 원수의 공격 등)⁷ 전제되어 그것으로부터 구출 받은 경험을 노래한 일종의 간증시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큰 일(은혜) 두 가지, 즉 창조(섭리)와 구속이라는 큰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서술시(敍述詩)이다. 그동안 전자는 감사시(Thanksgiving Psalms), 후자는 찬양시(Hymn of Praise)로 불려온 것이다.

베스터만은 히브리어가(또는 히브리 시편이) “감사,” “찬양”이라는 별도의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러한 범주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시, 찬양시라는 장르를 따로 구별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앞에 예를 든 다섯 개의 “찬양하다”라는 동사들도 각각 어느 쪽에 한정되어 쓰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두루 쓰이기 때문에 감사시나 찬양시를 어휘나 문학 형식면에서 구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베스터만은 이 양자가 둘 다 “찬양시”(Praise)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전자는 하나님이 하신 구체적인 일을 선언 내지 선포하는(declare) 것

⁶ 이 단어들은 의미가 비슷하여 정확히 구별하여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관성 문제에 취약한 개역개정본은 여기에서도 어려움을 보이는데 대체로 할렐루는 “찬양(讚揚)하다,” 짜머루는 “찬송(讚頌)하다”(이 두 단어가 있어 특히 일관성이 없음), 쉬루는 “노래하다,” 바라후는 “송축(頌祝)하다,” 호두는 “감사(感謝)하다”로 옮기고 있다.

⁷ 참고: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vol. II, 31-32.

이므로 “선언찬양”(Declarative Praise)이라 부를 수 있고, 후자는 현재 시인에게 경험되는 현실적인 사건이 아니고 오래 전에 일어난 거대 사건을 묘사하는(describe) 것이므로 “묘사찬양”(Descriptive Praise)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이 주장은 전적으로 히브리 어법을 살펴 나온 결론이므로 히브리 시편이 자신의 시들(기도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시의 내용에 대한 간편한 이해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써온 감사시, 찬양시라는 분류는 편의상 어느 정도 유지한다 해도 정확하게는 “선언찬양,” “묘사찬양”이라는 명칭이 시편의 시들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드러내는 분류라 보아진다.

선언찬양(감사시)도 탄식시처럼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개인 선언찬양과 백성의 선언찬양이다. 개인 선언찬양은 하나님이 시인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를 구원해 주신 경험을 노래한 것이고, 백성의 선언찬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곤경에서 구원해 주신 경험을 노래한 것이다. (탄식시에서처럼) 당연히 기도 주체도 전자의 경우는 “나”가 되며 후자의 경우는 “우리”가 된다. 개인 선언찬양은 다수가 발견되지만, 백성의 선언찬양은 상대적으로 매우 드문 편이다. 개인 선언찬양은 PI(Declarative Psalm of Praise of the Individual)라는 기호로, 백성의 선언찬양은 PP(Declarative Psalm of Praise of the People)라는 기호로 표시한다.

묘사찬양(찬양시)은 하나님의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응답이나 개입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아주 오래 전에 하신 큰 일에 대해 말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체를 포괄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수혜 대상이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될 수 없고 따라서 개인이 은혜를 받았거나 백성 전체가 은혜를 받았거나 하는 언급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개인이나 백성의

경험이 소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전 인류 또는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 전체를 기술하는 것이 묘사찬양이므로 묘사찬양은 탄식시나 선언찬양처럼 개인의 것과 백성의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묘사찬양은 한 가지만 존재하는 데 P(Descriptive Psalm of Praise)라는 기호로 표시한다.

이상과 같이 분류한 주 기도 장르들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종류가 될 것이다.

| | |
|-----------------------|-------------------|
| LI: 개인 탄식시 | 예. 13, 22, 142편 등 |
| LP: 백성의 탄식시 | 예. 74, 79, 137편 등 |
| PI: 개인 선언찬양(개인 감사시) | 예. 30, 34편 등 |
| PP: 백성의 선언찬양(백성의 감사시) | 예. 124편 등 |
| P: 묘사찬양(찬양시) | 예. 8, 104, 136편 등 |

시편의 기도 전체는 이 다섯 가지 장르를 주 기둥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다섯 장르를 숙지하는 것은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며 개별 시편의 바른 주해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제 탄식시, 선언찬양(감사시), 묘사찬양(찬양시)의 순으로 기도 장르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탄식시와 선언찬양은 각각 개인과 백성의 것으로 두 가지가 있지만 이 둘은 기도의 주체만 다를 뿐 내용이나 형식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해설은 한 범주 아래서 일반적으로 하되, 실제 예는 개인의 것, 즉 개인 탄식시와 개인 선언찬양 중에서만 들기로 하겠다.

II. 탄식시

1. 탄식시의 분석

탄식시(탄식기도)란 기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당한 괴로움을 하소연하며 곤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한 기도를 말한다. 개인 탄식시로 3, 4, 5, 6, 7, 13, 17, 22, 25, 26, 27,⁸ 28, 31, 35, 36, 38, 39, 40:12-17,⁹ 41(이상 1권),¹⁰ 42-43, 51, 52, 53, 54, 55, 56, 57, 59, 61, 64, 69, 70, 71(이상 2권), 77, 86, 88(이상 3권), 102(이상 4권), 109, 120, 130, 139, 140, 141, 142, 143편(이상 5권) 등 다수가 있고,¹¹ 백성의 탄식시로 12(이상 1권), 44, 58, 60(2권), 74, 79, 80, 83, 85(3권), 90(4권), 123, 126, 129, 137편(5권) 등이 있다.¹²

⁸ 27편은 1-6절은 신뢰의 시, 7-14절은 개인 탄식시로 생각된다.

⁹ 40편은 12-17절은 개인 탄식시로 분류될 수 있는 데 비해, 1-11절은 개인 선언찬양으로 생각된다.

¹⁰ 시편은 총 5권으로 편집되어 있다. 1권은 1-41편, 2권은 42-72편, 3권은 73-89편, 4권은 90-106편, 5권은 107-150편 등이다. 개역개정판에 붙여진 “제 1권,” “제 2권” 등의 표현은(영역들의 경우 Book 1, Book 2 등) 원문에는 없다. 원문은 다만 각 권의 제일 마지막 시편 끝에 송영을 붙여 한 권이 끝나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예컨대 1권의 마지막인 41:13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라도 아멘 아멘”이라는 송영이, 2권의 마지막인 73:18-19에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이다 아멘 아멘”이라는 송영이 붙여져 있는 것 등이다.

¹¹ 개인 탄식시는 시편 전체 150편의 약 30%에 해당한다.

¹² 백성의 탄식시는 전체 시편의 약 9.3%에 해당한다. 개인과 백성의 것을 합쳐 탄식시 전체는 시편 전체 150편의 대략 39.3%에 해당한다. 그리고 탄식시는(선언찬양, 묘사찬양도 마찬가지로

탄식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이다. 지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결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마 7:7) 하신 주님의 말씀은 탄식기도의 의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설이다.

그런데 시편(구약성경)의 탄식기도들은 일정한 형식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무런 규칙 없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일정한 구조를 따라 제작되었다는 말이다.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이나 국가가 처한 상황을 고하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할 때 고통을 말하고 간구를 드리는 일정한 기도 패턴이 있어 이 패턴에 의존하여 이 패턴을 따라 기도를 작성했던 것이다. 히브리 문학의 문학자산 중의 하나인 탄식시의 패턴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 1) 불평(Complaint)
- 2) 간구(Petition)
- 3) 신뢰의 고백(Confession of trust)
- 4) 응답의 확신(Assurance of being heard)
- 5) 찬양의 맹세(Vow of praise)

임) 시편만의 문학 장르가 아니다. 시편 밖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즉, 이스라엘의 문학 전체가 보유한 문학자산이었던 것이다. 특히 선지서에서 많이 발견된다. 예컨대 이사야서는 38:9-20이 개인 탄식시이며, 64:15-64:12가 백성의 탄식시이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의 고초를 많이 표현한 책으로서 탄식시가 두드러지게 많이 발견된다. 11:18-29, 12:1-4, 15:10-14, 15:15-18, 17:12-18, 18:18-23, 20:7-18 등이 개인 탄식시이고, 3:22-25, 14:7-9, 14:19-22 등이 백성의 탄식시이다. 참고: 현창학, 『선지서 주해 연구』(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13), 94.

각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불평

불평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괴로움을 두고 ‘불평’한 것이다. 여기서 불평이란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취할 필요는 없다. 민수기에서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 태도에서 나온 불평은 경계해야 할 바이지만, 탄식시에 등장하는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¹³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시련을 만난 시인은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다. 물론 절제를 넘어섰다고 보일 정도의 “원수들,” 자신,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평가가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들은 시인이 만난 어려움의 극한성 내지 절박성의 표지가 될 뿐이다. 극도의 어려움 그리고 도움을 구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은 시인으로 하여금 마지막이며 유일하게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게 한다.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어려움이기

¹³ 영어에서의 ‘불평’(complaint)이란 말을 생각해 보는 것이 탄식시의 이 요소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자. 값은 지불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다든지 가격에 비해 제품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구매자는 제품을 들고 판매자를 찾아가서 문제점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판매자는 이 요구에 대해 제품을 바꿔준다든지 환불을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 주게 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판매자를 찾아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불평’이다. 탄식시의 불평도 이와 유사하다. 부정적인 함의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시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정상적인 과정이 불평인 것이다.

에 시인의 어휘는 사납고 그의 문법은 거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나라한 절망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어려움을 “아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히려 큰 은혜가 된다. 이제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적절하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탄식시의 불평은 이와 같은 것이다. 곤란한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는 기도 응답 전 과정의 맨 선두에 있는 단계이다. 맨 선두에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계이다.

불평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뤄진다. 즉, 원수들에 관해 불평하거나, 시인 자신에 대해 스스로 불평하거나, 하나님(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하거나 등이다. 원수들에 관한 불평은 적들이 시인을 부당하게 조롱하거나 공격해 오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을 아뢰는 것이다. 시인 자신(“나”)에 대한 불평은 여러 이유 때문에 시인 자신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점, 또는 시인 자신에게 적절한 구원 수단이 없는 점 등을 토로한 것이다. 하나님(“당신”)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자신을 숨기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인의 (공의의) 눈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거나 하는 것에 대한 당혹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시편에 모두 등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둘이나 한 가지만 나오기도 한다. 어쨌든 불평은 탄식시를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불평이 있음으로 해서 시편의 탄식시가 존재하는 것이다. 고통, 곤경이라는 삶의 실존이 시인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된 배경임을 알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대로 개인 탄식시만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13편과 142편을 살펴보자.¹⁴

¹⁴ 여기 드는 구절들의 절수는 번역들의(한글역, 영역 등) 절 수를 따른 것이다. 시편에 표제

(1) 원수들에 대한 불평:

13:2b¹⁵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42:3b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¹⁶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2) 시인 자신(“나”)에 대한 불평:

13:2a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142:3a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4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3) 하나님(“당신”)에 대한 불평:

13: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142편은 이 부분이 없음)

2) 간구

간구는 불평에 이어지는 요소로서¹⁷ 불평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해 하나

(superscription)가 있는 경우는 BHS는 표제를 1절로(혹은 1, 2절로) 하여 여기서부터 절수를 매기기 때문에 번역들보다 절 수가 하나(또는 둘) 많다(번역들은 표제에 절 수를 매기지 않음).

¹⁵ 영문자 a, b는 한 절의 전반절, 후반절을 표시한다.

¹⁶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6절의 “나를 핍박하는 자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¹⁷ 간구가 불평에 이어진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며, 실제 많은 경우 그러하다

님의 해결을 구하는 내용이다. 아마 탄식과 간구는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요소들이라 할 것이다.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는 순수 불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문제를 제대로 고하지 않는 단순 간구란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으로서 어찌 할 수 없는 문제를 아뢰 다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시인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청하게 된다. 이것이 간구이다. 이처럼 탄식시에는 불평의 요소에 이어 간구의 요소가 반드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탄식시(Psalm of Lament) 간구시(Psalm of Petition) 불리기도 하는 것이다. 불평이 탄식시의 핵심 요소인 만큼 간구도 핵심 요소이다. 간구는 탄식시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간구도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들으소서”(시인의 기도를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달라는 청), “구하소서”(처한 곤경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청), “벌하소서”(자신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원수들을 벌해달라는 청) 그것이다. 개인 탄식시 13편, 142편, 59편을 예로 들어 보자.

(1) “들으소서”:

13:3a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142:6a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59:4b “나를¹⁸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 주소서”

(예: 13, 142편). 그러나 이 순서가 법칙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간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불평이 이어지는 순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예: 59편). 중요한 것은 탄식시에 불평, 간구 두 요소가 항상 핵심 요소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¹⁸ 개역개정판의 “나를” 앞에 있는 “주여”는 원문에 없는 내용이다.

(2) “구하소서”:

13:3b “나의 눈을 밝히소서”;

142:6b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7a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59:1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 “벌하소서”:

(13, 142편에는 이 부분이 없음);

59:5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11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잇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흠으시고 낮추소서,” 12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13a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14 “그들이¹⁹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3) 신뢰의 고백

불평을 토하고 간구를 올리고 하던 중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시인의 마

¹⁹ 개역개정 “그들에게”는 한글 어법상 적절치 않아 “그들이”로 고친다. 오히려 개역한글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두루 다니게 하소서”는 한글 어법의 무리가 없다.

음속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자 하는 믿음이 발생한 것이다. 신뢰의 고백은 이러한 (급작스런) 마음의 변화를 표현한 요소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탄식시를 중근동 다른 지역의 유사한 시들과 현저히 구별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중근동 다른 지역의 탄식기도들은 불평으로 시작하여 불평 자체에 머물다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스라엘의 탄식시는 불평과 간구를 넘어 기도가 반드시 찬양으로 발전 승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 순수한(mere) 탄식이나 간구, 다시 말하면 탄식이나 간구 자체에만 머무는 기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⁰ 이스라엘의 기도가 불평과 간구를 넘어 찬양으로 발전하는 바로 그 변곡점에 신뢰의 고백이 자리한다. 신뢰의 고백이라는 신비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암울한 분위기 속에 흐느끼던 기도가 구원의 확신과 찬양의 맹세라는 밝은 빛으로의 급격한 반전을 맛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시편 탄식시의 특징이고 이 특징을 있게 하는 신뢰의 고백의 매력이다. 실의에 잠겨 있던 시인의 마음에 어떻게 신뢰의 고백 같은 예기치 못한 기적이 도래하는지는 자세히 알 길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여 시인의 마음에 모종의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의 추정에 머무를 뿐이다.²¹ 어쨌든 신뢰의 고백은 시편 탄

²⁰ 이 점은 베스터만이 예리하게 관찰하였다. Claus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trans. Keith R. Crim and Richard N. Soulen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74-75. 베스터만은 구약의 탄식기도들은 반드시 불평과 간구를 넘어 찬양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보고 놀라게 된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르짖음은 언제나 간구와 찬양의 중간 지점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찬양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시편의 탄식시에 대해 관찰한다.

²¹ 양식비평이라면 성전에서의 예전을 삶의 정황으로(*Sitz im Leben*) 설정하여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구원의 신탁 따위를 선포했을 것이고 이때 모인 회중이 보인 반응(양식)이 신뢰의 고백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겠지만 본문만 두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식시를 그것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서 그 의의가 크다. 신뢰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시편의 탄식시는 그 자체로 늘 승리의 노래가 된다. 지금은 실의 속에 있지만 그것은 이내 확신으로 승리의 찬양으로 승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13편, 142편에서 신뢰의 고백의 예를 찾아보자.

13:5 “그러나 나는 주의 인지를²² 의지합니다”²³;

142:3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5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신뢰의 고백과 관련하여 몇몇 개인 탄식시에서 흥미로운 어법 하나를 관찰한다. 와우 역접(waw adversative)이라는 독특한 문법 형태인데 “그리고”란 뜻의 접속사 와우(ו)에 일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 아니(אני)를 연결한 형태이다(연결된 וָאני는 와아니라고 읽힘).²⁴ 이 구문은 “그러나 나는...”이란 의미가 되는데²⁵ 이 구문이 “나는 주를 의지

²² 개역개정판이 *헤세드*(חסד)를 포괄적인 단어 “사랑”으로 옮긴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랑”으로 번역해서 적합한 단어는 *아하바*(אהב)란 히브리어가 따로 존재한다(이 단어의 동사 *아함*[אהב]이 구약성경에 200회 이상 쓰이고 있다). *헤세드*는 구약 신앙 내용의 핵심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개역개정처럼 일관성 없이 이 단어 저 단어로 번역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찾아 그것으로 일관되게 번역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개역한글이 채용한 “인자”(“인자하심”)가 미흡한 점이 좀 있어도 *헤세드*를 가장 가까이 옮긴 말로 생각되므로 가급적 이 단어를 일관되게 쓰는 것이 옳아 보인다.

²³ 구문의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기 위한 필자의 사역.

²⁴ C.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71-75.

²⁵ 와우에 동사가 아닌 단어, 즉 비동사 요소(non-verbal elements)가 연결되면 순조롭게 흐르던 담화(discourse)가 일단 끊어지며 소위 “와우 이접(離接)”(waw disjunctive)이란 현이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와우에 동사가 연결되는 동안은 담화가 순조롭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구문은 “와우 순접(附接)”[waw conjunctive]이라 부른다). 와우 이접이 되면 사건이나 논리의 흐름이 끊기면서 따르는 문장의 의미가 (대체로) 대조, 부대(附帶) 상황, 설명, 주제의 시작이나 종결

합니다.” 또는 “나는 주의 인자를 의지합니다”와 같은 신뢰의 고백을 이끈다는 것이다. 와우 “역접”(逆接)이라는 이름처럼²⁶ *와아니*는 시의 내용과 분위기를 종래의 것과는 정반대로 뒤집는 어법이기 때문에 실의와 낙담에서 확신과 찬양으로 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신뢰의 고백의 기능을 분명히 하기에 매우 적합한 문법이다. *와아니*라는 와우 역접 문법으로 말미암아 신뢰의 고백이 탄식시 내에서 갖는 분위기 반전의 기능이 더욱 명료해졌다. 다음의 구절들이 개인 탄식시에 등장하는 와우 역접의 예이다.²⁷

13:5 “그러나 나는 주의 인자를²⁸ 의지합니다”

(וּאֲנִי בְחֶסֶדְךָ בְּטַחְתִּי)

31:14 “그러나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여호와여!”³⁰

(וּאֲנִי עֲלֶיךָ בְּטַחְתִּי יְהוָה)

52:8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어 하나

중 하나가 된다. 이것은 램딘이 관찰한 이래 학자들 사이에 꽤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문법 사항이다. 참고: Thomas O. Lambdi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1) §132. 시편 탄식시에 나오는 *와아니*는 대조의 의미가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고”에 “나”가 덧붙여진 된 문법 형태지만 그 의미는 “그러나 나는...”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²⁶ 램딘의 와우 이접(waw disjunctive)과 베스터만의 와우 역접(waw adversative)은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다만 베스터만은 램딘이라면 와우이접 중 대조라고 불렀을 *와아니*를 *와아니가* 이끄는 신뢰의 고백이 시의 분위기에 대반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역접”(逆接)이라는 강한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다.

²⁷ 와우 역접의 예에 해당하는 구절들은 개역개정이나 이 문법 형태의 특징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모두 필자의 사역으로 대체함. 여기 드는 예들은 베스터만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필자 자신의 관찰을 토대로 수정하고 보완한 자료들이다.

²⁸ 이하 개역개정이 *혜새드*를 “인자하심”으로 옮기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인자”로 바꿈.

²⁹ 개역개정 “나는 오직”은 “그러나 나는”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분명하다.

³⁰ 개역개정 “그러하여도”를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러나”로 고침.

님의 인자를 영원 영원히 의지합니다”³¹

(ואני כוֹזֵב רַעֲנַן בְּבֵית אֱלֹהִים בְּטַחְתִּי בַחֲסֵד־אֱלֹהִים עוֹלָם וְעַד)

59:16과 73:23은 정확히 “그러나 나는 주를(주의 인자를) 의지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위의 세 구절들처럼 “그러나 나는...”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내용도 사실상 이 셋과 상통하는 것이어서 이들 역시 기도 분위기의 반전을 보여주는 와우 역접 구절들로 분류할 수 있다.

59:16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를 높이 부르겠습니다”³²

(ואני אֲשִׁיר עִזָּךְ וְאֶרְנֵן לְבַקֵּךְ חֲסֵדְךָ)

73:23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당신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니다”³³

(ואני תְּמוּד עִמָּךְ אַחַת בְּיַד־יְמִינִי)

이외에 27:13, 38:15, 141:8 등의 구절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정확하게 “그러나 나는...”이라는 형식은 취하고 있지 않으나 위의 구절들처럼 문맥적으로 역접의 흐름을 드러내고 내용도 신뢰의 고백에 상응하는 것이어서 넓은 의미에서 위의 구절들처럼 역접성 신뢰의 고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시편의 탄식사에서 신뢰의 고백이 갖는 독특한 기능과 이

³¹ 여기서 개역개정은 개역한글 “오직”을 “그러나”로 고치고 있는데 그것은 잘한 일이다.

³² 개역개정에는 “그러나”가 표현되어 있지 않음.

³³ 개역개정에는 “그러나”가 표현되어 있지 않음.

를 더욱 명료히 표현하기 위해 몇몇 시편에 동원된 와우 역접의 어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편의 탄식시들은 신뢰의 고백이라는 독특한 변곡점을 지니고 있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망과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뚫고 희망과 기쁨으로 비상하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기도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뒤짚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 뒤짚는 힘은 언약 갱신이라 할 수 있는 계속되는 은혜의 새로운 체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순수한 슬픔의 뉘그러란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 고통의 토로란 그것 자체가 찬양으로 견인되는 승리의 함성에 다름 아니었다.

4) 응답의 확신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이 시인이 드린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진술한 것이다. 시인의 불평과 그의 간구는 그냥 허공에 외쳐진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이다. 하나님은 들으시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신다. 시인은 신뢰의 고백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 실제적인 응답은 선언찬양(감사시)에 가서 구체적으로 고백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하나님이 어떤 문제 해결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충만하게 된다. 응답의 확신은 시인으로 하여금 찬양으로(찬양의 맹세로) 기도를 마무리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13편에는 응답의 확신이 나오지 않는다. 142편, 59편에서 예를 들어 보자.

(13편은 이 부분이 없음)

142:7b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59:8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10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5) 찬양의 맹세

찬양의 맹세는 시편 탄식시의 요소들 중 해당 시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요소이다. 이스라엘의 탄식은 결국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요소이다. 처음에 울며 기도하던 시인은 마침내 (새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인자)를 발견하여 의지하게 되었고(신뢰의 고백),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시는 확신까지 얻게 되었다(응답의 확신). 지극히 당연한 귀결로 이제 시인은 은혜와 기적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순서를 취하게 된다. 시인의 계산을 넘어 큰 자비를 가져다주신 하나님은 영광 받아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의 결단이 표현된 것이 찬양의 맹세이다. 진정한 의미의 찬양은 묘사찬양(찬양시)에 제대로 드러날 것이지만 탄식시에 서는(그리고 선언찬양에서는³⁴) 그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먼저 예비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찬양의 맹세는 탄식시와(또는 선언찬양과) 묘사찬양을 연결해 주는 요

³⁴ 선언찬양에도 찬양의 맹세가 있음.

소이다. 탄식시에서 찬양을 맹세한 것이 결국 묘사찬양에서 본격적인 찬양으로 열매를 맺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찬양의 맹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은 구체적인 일에 대한 개별적인 감격의 표현이다. 구체적인 응답의 경험과 그에 대한 개별적인 감격의 표현이 쌓이면서 시인은 점차 하나님의 은혜 전체에 대해 깨달음을 얻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전체란 창조(섭리)와 구속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이미 오경에 계시된 바이지만 시인이 그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토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하나님 경험(임재경험)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탄식시의 기도와 찬양의 맹세가 묘사찬양(찬양시)의 토대가 되었으리라고 보는 이유이다. 어쨌든 이처럼 탄식시는 찬양의 맹세로 말미암아 그 자체 이미 찬양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묘사찬양을 태동시키는 토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양집(찬양들)”(*티힐림*[תְּהִלִּים])이라³⁵ 불리는 시편에 아무런 자격 조건의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묘사찬양은 2인칭 복수명령의 문법과 3인칭 진술의 문법을 조합한 형식으로 찬양을 말하고, 탄식시는(선언찬양도 마찬가지로) 1인칭(단수, 복수)³⁶ 의지형(cohortative) 동사의 문법으로 찬양의 맹세를 표현한다. 찬양의 맹세의 예를 개인 탄식시인 13편, 142편에서 살펴보자.

13:6a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³⁵ *티힐림*은 *티힐라*(תְּהִלָּה)(“찬양의 노래”)의 복수형이다. *티힐라*가 개별 시편의 제목으로 쓰인 것은 145편 한 번뿐이다. *티힐라*는 시편 본문에는 22:26, 48:11, 100:4, 149:1(이상 모두 MT) 등에 쓰였다. 참고: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vol. I, 2; vol. II, 218.

³⁶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 탄식시는 단수 동사, 백성의 탄식시는 복수 동사를 쓴다.

142:7a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³⁷

2. 탄식시(탄식기도)의 의의

지상에 살아가는 인간은 여러 종류의 결핍과 마주하며 살아가야 한다.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부족에 시달리기도 하며, 때로는 관계의 악화에서 오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사회 환경이 빚어내는 비극에 휘말려 여러 사람이 함께 엄청난 재난의 시간을 경과하는 수도 있다. 예수 믿어 죄의 문제와 영원의 문제를 다 해결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상의 고되고 어려운 삶의 현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탄식시는 삶의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자신이 겪는 곤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마련해 주신 귀하디 귀한 은혜의 수단이다. 아무리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위에서 주어진 구원의 통로가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We pray and God answers) 간단한 명제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기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존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예수께서 무한한 확신을 가지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고 외치셨

³⁷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이 목적을 의미하는 부정사구로 되어 있어서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을 감사하도록”이 되는데 이는 곧 “나를 구해 주시면 당신의 이름을 찬양(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뜻에 다름 아니어서 시인의 의지의 표현이 된다.

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마 21:22). 백지 수표에 금액을 적어 원하는 것을 다 받듯, 기도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복이 무한히 열리는 사실을 그림처럼 약속한 말씀들이다. 삶에는 고된 시간이 찾아온다. 사람의 힘으로 넘기 힘든 좌절의 시간도 올 수 있다. 그러나 “도와 주세요!”, “구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 문제 해결과 더불어 또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복된 세계가 열리게 된다. 어려움이 온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려 기도의 문을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 깊은 사귀음을 이어가게 한다.

탄식시는 전체 시편의 약 40%에 해당한다. 비단 탄식시만 아니라 감사시나 신뢰의 시들에도 탄식의 요소가 들어 있는데 이것들까지 다 합치면 탄식의 내용을 가진 시는 전체 시편의 55%를 상회하는 분량이다. 시편의 기도는 반수 이상이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기도라는 말이다. 그러나 탄식의 내용을 지닌 시가 이것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밀러는(P. D. Miller)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작든 크든 시인이 겪은 괴로움과 역경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씩은 말하고 있다고 그가 관찰한 결과를 보고한다.³⁸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찬양시나 지혜시 같은 것들도 조금씩은 탄식의 요소를 다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편에는 장르나 목적이 어찌 됐든 아픔

³⁸ 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보자: “The reader of the psalms of the Old Testament is quickly struck by the fact that most of the psalms deal with some sort of trouble or adversity, the psalmists’ experiences of enmity, oppression, and wickedness.” Patrick D. Miller, *Interpreting the Psalm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48.

이 없는 기도는 (거의) 없다는 말이 된다. 아픔은 인간 실존의 보편적 현상이며 시편은 이 아픔을 반영하는 성경이다. 시편은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을 반영하는 책이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우리의 신음을 들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성경의 탄식시의(또는 탄식의 내용을 지닌 시의) 존재는 이것을 말해 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간, 삶을 전적으로 공감하시는 ‘앎’을 말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파토스(divine pathos)라 한다. 우리를 아픔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한다. 아픔으로 우리의 삶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아픔을 아시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via dolorosa*)이 이 신적 파토스이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으로 죄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직접 참여해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시며(사 53:4),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sympathize with*)” 분이시라는(히 4:15)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신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이다. 예수님이 알아주시므로 성도는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아픔 자체의 해소는 또 다음의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한다.

이런 깊고 신비로운 진리와 더불어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움직임일 수 없는 사실은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점이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것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 응답이 기도하는 이의 소

원대로 되었든 소원과 다른 것이 되었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면 물론 감사하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감사하다. 아니 훨씬 더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 뜻이 이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우리의 뜻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는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마 6:10) 하는 기도를 항상 수반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이며 가장 좋은 결과를 동반하는 기도이다. 따라서 우리의 탄식은 그 자체로 승리의 노래이다. 고통을 털어 놓으면서도 우리는 곧장 찬양을 시작할 수 있다. 시간문제일 뿐 문제 해결과 승리의 시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